



김정록 회장 '취임 1년' 인터뷰

# 새보람

## SAEBORAM



제23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2)796-4280

www.kappd.or.kr

제214호

2010년 7월

## 공단(양경자) 사태 ‘끝장투쟁’ 돌입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투쟁은 계속 될 것이다. 목숨을 버릴지언정

“절대 굽히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고용공단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양경자) 사태에 대해 ‘끝장 투쟁’을 선포했다. <사진-지난 6월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MB정부 장애인 죽이기 정책 저항을 위한 총궐기 대회』에서 장애인을 기만하고 있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김정록 중앙회장>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양경자 사태 ‘끝장 투쟁’ 선포

### 전 방위적인 ‘자진사퇴’ 투쟁... ‘행동강령’ 채택, 이성규 이사 해임 김정록 중앙회장, 협회 임직원 및 40만 회원의 단결 촉구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가 최근 장애계 최대 이슈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양경자) 사태에 대해 ‘끝장 투쟁’을 선언했다.

김정록 중앙회장은 지난 6월 23일(수)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10년 정기대의원 총회(이하 총회)」가 개최되기 전 지장협 전국 16개 시·도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양경자 신임 이사장이 ‘자진사퇴’하는 날까지 강력하고 지속적인 투

쟁을 실시할 것을 결의했다.

특히 총회에서는 이번 공단(양경자)사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협회와 장애계를 배신한 이성규 이사(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의 ‘이사직 해임’을 의결했고, 공단(양경자) 사태와 관련해 지장협 임직원 및 모든 회원이 지켜야 할 4가지 ‘행동강령’도 발표했다.

행동강령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 본부와 지사의 임명직·위촉직 등 모든 직위의 일괄사퇴, 공단 본부와 지사

의 모든 행사와 모임에 불참·불응, 양경자씨의 이사장 임명을 불인정하며 어떤 만남도 거부, 공단의 소관 부서를 노동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정록 중앙회장은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고사하고 장애인에 대한 기초적인 배경지식도 감수성도 없는 양경자라는 사람을 480만 장애인의 고용을 책임져야 하는 공단의 이사장으로 올릴 수가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이어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 마음으로 뭉친다면 공단(양경자) 사태는 물론, 후퇴된 현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을 되돌릴 수 있다”고 밝히며 지장협 임직원 및 40만 회원들의 단결을 촉구했다.

한편 지장협은 양경자씨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기 위한 투쟁을 전 방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달 9일부터 11일까지

공단 정문 앞에 천막을 치고 양경자 씨의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회장 표창대) 회원들은, 현재 공단 정문 앞에서 양경자 씨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투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회장 이규달)는 지난 21일(월) 서울 용산구 도원동에 있는 양경자 씨 타택 앞에서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실시하고 있다.

<2~3면 계속>



# ‘한국장애인공단(양경자) 사태’ 투쟁 장기화 양상

장애단체 ‘끝장 투쟁’ 선포...김정록 회장, 공단 비상임 이사 사직서 제출  
‘시사매거진 2580’ 보도, 한나라당 전대 후보 “공단 사태 해결” 약속



최근 장애계의 최대 이슈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양경자) 사태’에 대응해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를 비롯한 전국 장애단체들의 투쟁이 점차 장기전의 양상을 띠고 있다.

지장협을 비롯해 ‘공단(양경자) 사태’의 투쟁을 실시하고 있는 국내 52개 장애단체들은 지난 6월 16일(수) 성명서를 발표하며 ‘장애인고용공단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출범했음을 알렸다.

또한 “양경자 씨가 자진사퇴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 정상화될 때까지 향후 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의 모든 공식적, 비공식적 접촉을 거

부할 것이며 이사직의 전원 사퇴는 물론 어떠한 회의나 모임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경자 씨를 공단의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세미나, 전국기능경기대회, 국제기능경기대회는 보이콧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 ■ 장애단체장, 공단 비상임 이사직 ‘사직서’ 제출

비대위의 경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로 나타났다. 성명서가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김정록 중앙회장,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 최동익 회장,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 여장연) 장명숙 상임대표가 공단

의 비상임 이사직을 사직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 6월 30일(수) 오전 8시 지장협 회장실에서 열린 『제3차 장애인고용공단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서 공단 이사장 양경자 씨의 임명에 대한 반대의 사유로 비상임 이사직을 사직하기로 결의하고, 당일 우편으로 노동부에 사직서를 발송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장협 김정록 중앙회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채종걸 상임대표, 한시련 최동익 회장, 여장연 장명숙 상임대표,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김광환 회장 등이 참석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제41조 ④항」과 「공단 정관 제16조 ④항」에는 “공단의 상임이사과 비상임이사 중 각각 3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구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향후 이사회 소집은 물론, 예산 및 결산, 운영계획, 정관 변경 등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장애인고용촉진법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제41조(임원의 임면) ④상근이사와 비상근 이사중 각각 3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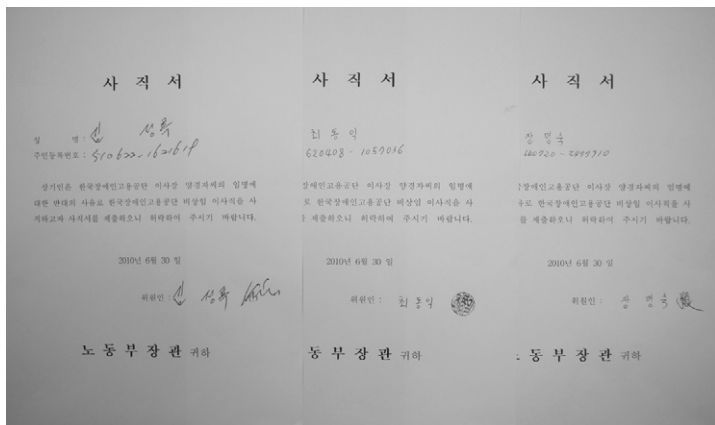
※ 공단 정관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16조(임원의 임면) ④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중 각각 3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07.10.9>

또한 비대위는 이날 양경자 씨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공문을 공단과 노동부에 발송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날 노동부와 공단으로 발송한 공문에는 양경자 씨가 자진사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업무를 할 의사가 없는 걸로 간주하여 노동부와 공단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 및 업무를 거부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9월에 개최될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실력 저지와, 2011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2011 서울 제8회 국제장애인올림픽」의 반대를 위한 서한문을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위원회(IAF)’에 발송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 ■ 강력한 투쟁의 불길

한편 지장협은 현재 ‘공단(양



김정록 중앙회장을 비롯한 장애단체장의 공단 비상임 이사직 사직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회원들이 지난 6월 22일 공단 정문 앞에서 양경자 씨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경자) 사태'에 대응해 전 방위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현재 공단 정문 앞에서는 50여명의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회장 표창대) 회원이 양경자 씨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지난 6월 22일부터 개최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회장 이규달) 회원들은 서울 용산구 도원동에 소재한 양경자 씨 자택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특히, 지난달 23일(수)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번 공단(양경자)사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협회와 장애계를 배신한 이성규 이사(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의 '이사직 해임'을 의결하고, 공단(양경자)사태와 관련해 지장협 임직원 및 모든 회원이 지켜야 할 4가지 '행동강령'도 발표하는 등 '끝장투쟁'을 위한 내부결속을 다졌다.

이밖에 공단 사태를 비롯해 후퇴하고 있는 현 정권의 장애인 복지정책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한 언론 섭외 및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밖에 한국 DPI(회장 채종걸)는 이성규 서울시복지재단 앞에서 이성규 대표이사를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실시하고 있고, 한시련 회원들은 임태희 전 고용노



지난 7월 4일(일) 공단(양경자) 사태를 비롯한 장애인복지정책의 후퇴를 전국으로 보도한 MBC '시사매거진 2580'.

동부 장관(현 대통령 비서실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임태희 전 장관 자택 앞에서 벌인 바 있다.

### ■ 국회의원 및 언론 가세...MBC '시사매거진 2580' 방영

지장협은 필두로 하는 비대위의 이와 같은 노력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언론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 6월 24일(목) 성명을 내어 "장애계의 상징적인 자리인 장애인 고용공단 이사장에 장애인 이사를 퇴임시키고, 비장애인인 양경자 전 국회의원을 선임한 것

은 장애계를 무시한 낙하산 인사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겨레신문은 지난 6월 21일(월)과 23일(수) 관련 기사와 사설을 차례로 게재하면 공단(양경자) 사태의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지난 7월 4일(일) MBC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방영됨으로써 공단(양경자) 사태를 전국에 알리는데 성공했다. 이날의 방송에서는 공단(양경자) 사태, 장애인연금, LPG 지원제도 폐지, 장애등급재심사 등 후퇴하고 있는 현 정부의 장애인복지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물론 장



지난 11일(일) 대전 유성구 레전드 호텔에서 열린 「2010년 장애인당사자 권리 찾기를 위한 정책결의 대회」 모습.

애인당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욕구)를 전국으로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지장협은 '시사매거진 2580'의 기획단계서부터 방영이 결정되는 순간까지 자료제공, 인터뷰이(interviewee) 섭외 등 협회차원의 가능한 모든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 ■ “투쟁은 계속 된다”

한편 비대위는 앞으로 공단(양경자) 사태의 해결을 위한 투쟁을 변함없이 강력하게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7월 14일에 실시되는 한나라당 전당

대회와 7월 28일 보궐선거에 맞춰 투쟁을 전개해 나갈 예정”을 밝히며 투쟁방법으로 전당대회 지역토론회 참관 투쟁 및 피켓시위, 재보궐 지역구 장애인의 한나라당 탈당계 제출 및 출마자의 양경자 씨 사퇴 동참 촉구 등을 밝혔다.

이밖에 지방노동청(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및 지방장애인고용공단(미설치지역인 충남, 경북, 경남을 제외한 13곳)에서의 집회와 양경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투쟁을 병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HOT ISSUE

# 한나라당 전대 후보들, “공단(양경자) 사태 해결하겠다”

한편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나선 후보자들이 '공단(양경자) 사태'의 해결을 약속해 공단(양경자)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지난 11일(일) 오전 11시,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소재한 레전드 호텔에서 열린 「2010년 장애인당사자 권리 찾기를 위한 정책결의 대회」에 참석한 안상수, 홍준표, 정두언, 나경원 의원은 최근 장애계 최대 이슈인 공단(양경자)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가 개최한 이날 대회는 장애인연금, LPG 지원제도 폐지, 공단(양경자)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480만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



'공단(양경자) 사태'의 해결을 약속한 한나라당 전당대회 출마자들.(왼쪽부터 안상수, 홍준표, 나경원, 정두언 의원)

련하기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14일(수) 열리는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공단(양경자) 사태를 비롯해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살필 수 있는 자를 '지장협 한나라당 대의원(224명)'의 힘으로 한나라당의 새 대표를 만들기 위한 의미도 담

겨있다.

김정록 중앙회장은 대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의원들을 향해 “최근 공단(양경자) 사태로 인해 480만 장애인의 자존심은 커다란 상처를 받았다”고 밝히며 공단(양경자)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안상수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공단(양경자) 문제 해결을 위한 답판을 지을 것”이라고 밝히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약속했다.

이어 홍준표 의원은 “낙하산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 타야 하는데 자격 없는 사람이 왔다”

고 밝히며 “잘못된 것은 꼭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2006년 2008년까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홍 의원은 당시 공단 이사장이었던 박은수 민주당 의원을 “장애인 고용을 위해 참 열심히 일했던 이사장”이라고 평가하며 장애인 이사장에 대한 호의를 밝혔다.

나경원 의원 “너무나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참 부끄럽다, 당 대표의 선출 유무에 상관없이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정두언 의원은 “평소에 누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양경자 이사장과 가깝지만 나는 '예스(YES), 노(NO)와' '공(公)과 사(私)가 분명한 사람’이라고 밝히며, “전당대회와 상관없이 잘못된 것은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다.



# 김정록 중앙회장 ‘취임 1년’ 인터뷰

## ‘장애인당사자의 완전한 참여’가 실현되는 시대를 위해 매진할 터



7월 15일(목)은 지난해 7월 “지난날에 대한 반성과 개혁을 통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새로운 탄생”을 선언하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제6대 회장’에 오른 김정록 중앙회장의 ‘취임 1주년’이 되는 날이다. 급변하는 장애인 복지 환경으로 인해 한국지체장애인협회로 모아지는 장애계의 관심과 기대도 큰 지금, 본지는 김정록 중앙회장과 ‘취임 1주년’ 인터뷰를 통해 김정록 중앙회장의 향후 협회 운영방향과 비전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2010년 7월 15일, ‘취임 1주년’을 맞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정록 중앙회장.

Q) 우선 ‘취임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A) 1년이란 시간이 눈 깜짝할 순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와서 생각해 보면 참 바쁘게 뛰어다녔던 한 해였습니다.

취임하고 지금까지 1년 사이에 전국을 세 번정도 순회 방문한 것 같습니다. 자동차로 움직인 거리만 해도 82,000km가 넘어가고 있고, 새롭게 만난 인사에게 건넨 명함만 해도 2천장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취임식에서 회원여러분들에게 드린 “회원의,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한 협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였습니다. 그리고 통 큰 단결로 군소장애인단체들을 이끌고 포용하는 그런 ‘멋진 지장협’을 만들어 가겠다는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작년 선거 과정에서 혼란을 겪었던 협회도 이제 안정을 되찾았고, “장애인 복지를 선도하는

지장협’의 옛 위상을 되찾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제가 협회를 안정시키고, 협회 안에서 장애인의 삶의 희망과 꿈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전국 40만 회원동지 여러분들의 지지와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부족한 저에게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회원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Q) 김정록 중앙회장님의 취임 1년간 장애계에는 ‘장애인연금법 실행’, ‘LPG 지원제도 폐지’ 등을 비롯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한 소회는?

A) 지난 1년은 다시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너무도 다사다난(多事多難)한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국내·외 정세만큼이

나 우리 협회와 전국의 장애인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헤쳐 온 한 해였습니다. 어려운 국가경제와 급변하는 주변 환경은 매우 역동적이었고, 일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물론 ‘6.2 지방선거’를 통해 다수의 장애인 당선자가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만, 허울만 좋은 ‘장애인연금법’의 시행, ‘LPG 지원제도’ 폐지와 최근 ‘공단(양경자) 사태’까지 장애인 삶과 자존심을 뒤흔드는 슬픈 소식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참 많이 싸웠습니다. 480만 장애인들에게 처한 현실이 애통해 잠을 이루지 못한 날이 많았습니다. 때론 분개하고 또 좌절할 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Q) 지난 1년간 김정록 중앙회장님이 역점을 둔 것은 무엇이며,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A) 모든 조직은 변화를 피할 수 없으며 변화는 조직의 내적, 외적인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장애인단체 조직은 개방체제로 다른 여타의 조직에 비해 다양한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신념을 바탕으로 취임한 직후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취임 후 지금까지는 협회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전열을 정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지역협회를 방문하면서 현장에서 보고 들은 여론을 장애인복지정책에 접목시키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 동안 쌓아온 장애당사자주의를 더욱 발전적으로 살려나가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 조직역량을 함께 모으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불법 무질서를 일소하고 차세대에 희망을 주기 위한 사업을 구상하는데 전력했습니다.

먼저 조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회 설립 최초로 ‘전국 16개 시·도 협회 감사’를 실시했고, 조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권역별 직무교육’을 부활시켰습니다.

또한 지난 해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올해 3월 칠레에 ‘지진피해 성금’을 전달하며 지난 선거과정에서의 불미스러운 일로 실추된 국내 최대의 장애인당사자단체인 지장협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과 올해 6월 1만명이 넘는 대규모의 집회를 개최하며 장애인연금, LPG 지원제도를 비롯한 480만 장애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했습니다.

이밖에 당사자 정치참여를 위한 ‘6.2지방선거 출마자 지원’과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장협 자정결의대회, 칠레지진사태 모금운동 전개,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회원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1년간 열심히 투쟁한 것이 대중적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는 ‘새로운 지장협’으로 변모하는데 성공했다고 자부합니다.

Q) 이루지 못해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 먼저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2009년 7월 24일 63빌딩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회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김정록 중앙회장.



지난해 11월 여의도에서 열린 ‘장애인연금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투쟁 구호를 외치고 있는 김정록 중앙회장.





2010년 1월 28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2010년 전국지체장애인지도자 신년인사회』에서 김정록 중앙회장과 매니페스토 추진단으로 위촉된 전국 16개 시·도 협회장들이 장애인 복지증진을 염원하는 '희망의 종이비행기'를 하늘로 날리고 있다.



김정록 중앙회장이 지난 3월 16일 주한 칠레 대사관에서 열린 '칠레 지진피해 구호성금 전달식'에서 성금 전달 후 데니스 빅스 칠레 공사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의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한 '장애인복지 정책연구소'를 설립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하지만 연구소는 '장애인복지를 선도하는 지장협'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알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연구소 설립의 청사진을 회원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회원여러분들을 비롯한 480만 장애인들의 열망이었던 장애인연금의 현실화, LPG 지원제도 유지를 이루지 못한 것과 양경자 씨의 공단 이사장 임명을 막지 못한 것이 너무도 아쉽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셨던 회원여러분들에게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Q) 현재 장애계의 최대 화두(문제)는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장협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현재 장애계의 최대 화두는 '공단(양경자) 사태'가 아닐까 합니다. 장애인고용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고사하고 기초적인 배경지식조차 없는 양경자 씨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이사장으로 오른 것은 장애계 역

사에 길이 남을 비극입니다. 양경자 씨는 480만 장애인의 일자리를 근심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의 역할은 더욱 커졌습니다. 양경자 씨의 '자진 사퇴'를 이루어 내기 위한 선봉장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기에 처한 장애인 복지를 위해 그리고 잃어버린 480만 장애인들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군소 단체를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 지장협에 주어진 역할이자 사명입니다.

또한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단체 지원금 인상, LPG 지원제도 부활 등을 포함한 '2011년 장애인 복지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국내 최대 장애인당사자 단체의 수장으로서 타 장애인단체와 함께 정부, 국회에 대한 협상과 투쟁을 병행해 480만 장애인여러분에게 당면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Q) 향후 1년, 그리고 임기 내 꼭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A) 먼저 협회의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전국 16개 시·도 협회가 장

래인표준사업장 및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데 협회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및 사회적기업의 운영은 '장애인 고용 창출'과 더불어 협회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협회를 투명하게 만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MOU를 체결하며 안정적인 재원 속에서 '청년장애인 육성'을 비롯해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사업)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를 선도하는 지장협'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애인복지 정책연구소'의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새보람 독자를 비롯한 회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새보람 독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40만 회원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보내주신 지난 1년간의 격려와 사랑에 진심

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와 회원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 480만 장애인의 복지와 권리를 위해 열심히 투쟁했습니다. 비록 눈앞에 보이는 성과가 작더라도, 지금의 현실이 녹록치 않더라도 지난 1년의 시간은 새로운 1년의 값진 씨앗이 될 거라 믿기에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어려운 환경이지만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저와 회원여러분들 모두 희망을 가슴에 품고,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그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으며,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불굴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서로 힘과 용기를 주는 자랑스러운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일원이 됩시다.

1년 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항상 곁에서 오직 회원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만드는데 다시 1년을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1년간의 사랑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회원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록 중앙회장은 '취임 1주년' 인터뷰를 통해 오직 회원을 위해 존재하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10년 6월 14일 공단(양경자) 사태로 촉발된 'MB정부 장애인 죽이기 정책 저항을 위한 총 결의대회'에 모인 1만 3천여명의 장애인들에게 투쟁을 촉구하고 있는 김정록 중앙회장.



# ‘2010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 ’09년 사업 결산 및 ’10년 사업계획 발표...이성규 이사 해임



『2010년도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6월 12일 서울 올림픽 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열렸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의 2010년 사업규모가 지난해 28억1천7백9십3만8천원보다 6천3백여만원이 증가된 28억8천1백25만3천원으로 결정됐다.

지난 6월 23일(수) 오후 2시, 서울 올림픽 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열린 『2010년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와 같은 지장협

의 2010년도 사업이 확정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9년 사업보고 및 감사보고와 201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등이 안건으로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중앙회 김영근 조직행정실장은 사업보고를 통해 홍보계몽, 직업재활, 편의센터, 체육진흥 등의 2009년도 지장협 사업이 큰 무리 없이 진행되었음을 설명

했고, 이후 김황곤 감사는 ‘감사보고’를 통해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면밀하게 검토해 감사한 결과 2009년의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되었음을 확인했다”고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에게 밝혔다.

김정록 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협회의 발전을 위해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린다”며 “올 한해에도 우리 협회가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장애인 복지를 선도하는 단체로 우뚝 서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공단(양경자)사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협회와 장애계를 배신한 이성규 이사(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의 이사직 해임 안이 ‘기타 안건’으로 상정돼 대의원 전원의 동의와 재청을 통해 가결됐다.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지장협 서울·경기협회 회원 300여명은 최근 장애계 최대 파문의 주인공 공인 양경자씨를 규탄하며 공단 이사장직에서 하루빨리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는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취재를 나와 투쟁 현장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고, 회원들과의 인터뷰도 실시했다.

한편 집회의 마지막에는 부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김광표 회장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전병희 시흥시지회장의 삭발식이 실시됐다. 김 회장은 “양경자씨가 자진사퇴하는 날까지 강력히 투쟁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삭발식을 감행했다”고 삭발의 의미를 전했다.

## ‘장애인상담요원 권역별 교육’ 실시



지난 7월 1일 경기 용인에 위치한 양지파인리조트에서 열린 「2010년 장애인전문상담요원 권역별 실무교육(제1권역 교육)」에서 김정록 중앙회장이 ‘협회 및 국내 장애인복지의 발전과제’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 급변하고 있는 복지환경에 대한 지식습득과 행정실무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장애인전문상담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2010년 장애인전문상담요원 권역별 실무교육」을 전국을 순회하며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차례로 실시하고 있다.

현재 ‘제1권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2권역(대전, 충북, 충남)’, ‘제3권역(광주, 전북, 전남, 제주)’ 교육을 마쳤고 7월 15일(목)부터 16일(금)까지 대구 북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리는 ‘제4

권역(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교육이 남겨진 상태이다.

교육은 ‘협회 및 국내 장애인복지의 발전과제’를 주제로 하는 김정록 중앙회장의 특강과 중앙회 김태호 사무총장의 ‘단체운영 실무지침’ 강의, 현재 장애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등급심사’에 대한 보건복지부 임광섭 사무관의 강의로 구성됐다.

이밖에 김종인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장의 ‘장애인의 이해와 정책패러다임의 변화’, 신용호 장애우권의 문제연구소 소장의 ‘장애인 인권운동과 자주권’에 대한 강의도 마련됐다.

## 양경자 ‘자진사퇴’ 촉구 집회

### 삭발식 거행...MBC ‘시사매거진 2580’ 취재



MBC ‘시사매거진 2580’ 촬영팀이 지난 6월 2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앞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원들이 양경자 이사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는 지난 6월 25일(금) 오전 11시 경기도 성남에 소재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정문 앞에서 양경자 신임 이사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 ‘편의증진 전문가 간담회’ 개최



지난 14일 열린 ‘편의증진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센터 직원들이 2010년 하반기 중점 사업인 ‘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화를 위한 실태조사’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지체장애인편의시설중앙지원센터(센터장 김정록, 이하 센터)의 하반기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공통추진 과제를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10년 3/4분기 편의증진 전문가 간담회」가 7월 14일(수) 오후 2시 이룸센터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중앙 및 전국 16개 광역센터 직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2010년 하반기 중점 사업으로 7

월 말부터 오는 11월까지 실시될 예정인 「장차법 대응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적정화를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주요내용을 논의하고 세부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편의증진 업무 관련법의 제·개정에 따른 교육이 실시됐고, 2011년 각 지자체 예산 마련에 관한 논의와 센터 홈페이지 활성화에 대한 토론의 시간이 마련됐다.

## 인사 동정

• 퇴직 김재영 중앙회 체육정책팀장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새보람 제214호 2010년 7월 15일

회 장 · 발행인 / 김정록 편집장 / 이현일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 / 서울라05825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 hambaknun30@nate.com

대표전화:(02)796-4280 FAX:(02)796-428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성명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직원들의 양심선언을 기다린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480만 장애인의 고용정책을 책임지기 위해 법률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서 공공성이 매우 강해야 하는 기관이다.

특히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고용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정치적 논리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설립목적이 변동되거나 정치권력에 의해 장악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곳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현재 이명박 정부의 개국공신을 위한 자리를 보전해주는 곳으로 ‘낙산 양성소’로 전락해버렸다. 그리고 양경자의 고공낙하를 위한 준비 작업에 공단의 고위급 간부직원들이 한 몫을 하는 통탄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공단의 현 주소다. 장애인을 위해 존재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권력을 동원해 장애인의 접근을 막는 비극은 이제 낯설지도 않다.

일찌기 장애인복지는 장애인당사자 주의로 가고 있으며 그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임직원들은 장애인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에 기꺼이 자신의 양심을 팔았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영달을 꾀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해야만 자신의 자리를 보전할 수 밖에 없는 어떤 압력이 있었나? 아니면 스스로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공적을 세우고 싶었던 것인가?

지난 수 년 간 장애인 고용전문기관이라는 위상과 그에 걸 맞는 대우를 받아왔던 공단과 그 직원들은 이제 공단이 아니라 사단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작금의 사태를 바로 앞에서 목도하며 어찌 침묵하고 있는 것인가? 장애인공단의 임직원들은 이성도 감성도

없단 말인가?

머리로 아무리 이해가 안 되어도 심정적으로 이해되는 일이 있고, 심정적으로 이해는 되나 이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들이 있다.

그러나 이번 양경자 이사장의 임명은 어느 것으로든 이해가 되지 않으며 용납할 수도 없는 처사이다. 장애인복지 철학도 지식도 없는, 자신이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의 내용도 기억 못하는 이사장이 결재를 하는 것을 원하는가? 자신의 기본적인 업무조차 파악 못해 국회의원들에게 망신을 당하는 이사장을 모신다면 본인들에게도 불명예가 아닌가? 양경자 씨는 장애에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낙선 대상으로 지목될 만큼 유명한 분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는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임직원들은

지금 장애인계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나 다시 한 번 귀 기울여야 한다. 지금 창문을 열어 무더운 피약별 아래서 숨 없이 외치는 480만 장애인들의 울분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비 양심과 무책임을 반성해야한다. 그것이 바로 장애인 고용을 통해 장애인복지를 책임져왔던 당신들이 취할 최소한의 예의이다.

그리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의 어리석은 방관은 장애인 복지역사에 ‘검은색 리본’으로 기록될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

지금 장애계가 일컫는 ‘공단 事態’가 ‘공단 死態’로 변하는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0년 7월 14일

장애인고용공단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 윤석연 신임 회장 취임



‘제9대 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에 취임한 윤석연 신임 회장.(오른쪽 두번째)

### 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이하 대전협회)의 ‘제9대 회장’으로 임명된 윤석연 신임 회장의 취임식이 지난 9일(금) 대전 시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취임식에는 김정록 중앙회장, 염홍철 대전시장, 이상태 대전시의회 의장, 김신호 대전시교육감 등의 내빈과 대전지역의 많은 장애인들이 참석해 새롭게 출범하는 대전협회와 윤석연 회장의 성공을 기원했다.

윤 회장은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장, 대전시 장애인 인권위원장, 유성구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이사 등을 역임하고 있다. 또한 7년 째 대전시자원봉사대상을 수상해 오고 있으며, 대전시장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비롯해 자랑스런 지체장

애인상(국회의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날 김정록 중앙회장은 축사를 통해 “윤석연 회장은 풍부한 실무경험은 물론, 지난 2004년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의 관장으로 취임한 후 복지관을 대전지역의 대표적인 사회복지시설로 일구어 낼 정도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은 준비된 회장”이라며 치켜세우며 “대전지역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는 덕담을 건넸다.

이에 윤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김정록 중앙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하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대전지역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은 물론, 산적해 있는 장애인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관련 관계자 교육’ 실시



지난 6월 23일(수)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관련 관계자 교육’에서 지체장애인편의시설경기지원센터 이기정 팀장이 ‘센터소개 및 편의시설 홍보’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 지체장애인편의시설경기지원센터

지체장애인편의시설경기지원센터(센터장 표창대, 이하 경기센터)는 지난 6월 23일(수)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경기도 내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설계·시공 관계자 등 7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관련 관계자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현재 건축물의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자체 사용검사를 시행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고 시공하는 경기도시공사(공무원연금공단을 포함)를 대상으로 설계

초기 단계부터 편의시설의 적정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경기센터에 교육을 의뢰하며 마련된 것이다.

교육은 장애인편의증진 관련법령 및 세부설치기준을 단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 기본, 심화과정으로 구성되어 이루어졌고, ‘장애인편의증진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공동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사례 및 북유럽의 선진사례 강의 등이 실시되어 공동주택 건설 관계자가 장애인편의시설에 관련한 올바른 기술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뜻 깊은 기회가 되었다.



# “하나 됨으로 도약하는 복지관”

‘개관 5주년 기념식’…감동을 주는 복지관이 될 터



‘용인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5주년 기념식’의 강사로 초청된 개그맨 김보화 씨가 “웃는 인생!! 성공 비결!!”을 주제로 ‘긍정적인 삶’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 용인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용인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정성기, 이하 용인복지관)은 지난 6월 17일(목)부터 18일(금)까지 양일간에 걸쳐 복지관 앞마당 및 3층 강당에서 ‘복지관 개관 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용인 지역의 장애인, 지역주민, 지역인사 등 550여명이 참석한 이번 기념식은 지난 2005년 개관 이후 5년 동안 지역장애인 복지를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용인복지관의 사업성과를 정리하고, 용인지역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복지관으로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은 ‘이용고객이 만들어 가는 복지관’, ‘지역사회와 소통

하는 복지관’, ‘하나 됨으로 도약하는 복지관’이라는 3개의 테마로 나뉘어 행사가 진행되었다.

기념식의 첫째 날인 17일(목)에는 김보화의 초청명사 특강, 복지관 Open Day, 자원봉사단 발대식 및 자격선수단 출범식 등이 열리며 복지관 이용고객 및 지역주민에게 열린 복지관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선보였다.

특히 “웃는 인생!! 성공 비결!!”을 주제로 ‘긍정적인 삶’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던 김보화 씨의 강연은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고, 삼성에버랜드 치료도우미 견과 함께한 ‘복지관 Open Day’는 용인지역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장애인과 복지관에 대해 알아가는 뜻 깊은 시간

이 되었다.

18일(금) 기념행사 당일에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관 5주년 기념식, 복지관 이용고객들이 주체가 되어 만드는 이용고객 모니터링단 ‘가온길’의 발대식을 진행하였으며 식후행사로 화합의 페스티벌과 어울림 대형퍼즐을 통해 ‘하나 됨으로 도약하는 복지관’이 되는 시간을 가졌다.

용인복지관 정성기 관장은 “지난 5년간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이용고객, 후원자, 자원봉사자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이번 5주년을 계기로 보다 질 높은 장애인복지 실천기관으로 재도약하는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개관에서 5주년이 되기까지 용인시 장애인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용인복지관이 복지관 모토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늘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결 같은 감동을 주는 복지관’이 되길 기대해본다.

## 은성호 군, 제주시장 감사패 수상



김방훈 제주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은성호 군(가운데)이 어머니와 용인시서북부장장애인종합복지관 임형규 관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용인시서북부장장애인종합복지관

용인시서북부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형규)의 직업적응훈련생 은성호 군이 지난 6월 13일(일) 제주에서 음악을 통해 소통과 화합, 나눔과 협동의 문화를 조성하고자 개최된 ‘사랑의 음악회’에서 『미라클 앙상블』의 일원으로 참여해 멋진 피아노 연주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에 굴하지 않고 음악을 통해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은 열망을 가진 3명의 장애인으로 구성된 밴드로, 은성호 군은 피아노 뿐 아니라 클라리넷도 멋지게 연주하는 천재적 연주가이다.

특히 은성호 군은 연주회 하루 뒤인 6월 14일(월) 장애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은성호 군에게 감명을 받은 김방훈 제주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 ‘소나무 아래 잠들다’ 무료 공연



지난 7일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연극 ‘소나무 아래 잠들다’의 무료 공연.

###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난 7월 7일(수) 오전 10시 30분,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관장 박선하, 이하 김천복지관) 3층 강당에서는 극단 城(성)의 연극 ‘소나무 아래 잠들다’의 무료 공연이 실시됐다.

복지관 이용고객 및 지역 장애인 120여명이 참석한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찾아가는 ‘문화순회사업’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연극은 그동안 연극 등 문화 공연을 관람하고 싶어도 비싼 관람료와 이동의 제약 등

으로 소외된 지역 장애인들에게 공연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날 공연된 연극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와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아가는 한 여인의 마음을 잔잔하지만 힘 있게 그려낸 작품으로 지난 6월 28일부터 전국의 10개 사회복지 기관을 순회하며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공연을 관람한 조은숙(65, 뇌병변장애 3급)씨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와 시어머니의 모습에 잠시 웃음도 났지만 세여인의 삶이 너무 애처롭고, 특히 두 어머니를 사랑하는 딸이자 며느리의 모습이 너무 가슴 아프다”며 눈물을 흘렸다.

## “짚과 함께 마음을 하나로 엮어요!”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 사업 ‘전통 짚풀공예’ 실시

### 서울시립북부장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립북부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정의철, 이하 북부장복) 섬김주간보호센터는 지난 7월 6일(화) 중증지체·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사회성 향상 및 긍정적 정서 함양을 지원하기 위한 ‘전통 짚풀공예’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10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번 체험행사에는 짚풀생활사박물관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각기 다른



‘전통 짚풀공예’에 참가한 복지관 이용 장애인들이 짚풀 새끼꼬기를 배우고 있다.

유형의 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려 짚풀을 이용한 새끼꼬기와 생활소품, 장식품 등 공예작품을 만

들고 이를 통해 협동심, 창의력, 성취감 등을 심어주는 기회가 되었다.





성남시의원에 당선된 정기영 당선인(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성남시지회 회원)이 소감과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를 밝히고 있다.

지난 6.2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각 지역의 장애인당선자들을 축하하고 민선 5기 지방자치에서 이뤄야 할 장애인 복지 및 인권 정책 발전에 대한 결단을 이끌어내기 위한 「6.2지방선거 장애인당선자 축하연」이 지난 6월 24일 (목) 낮 12시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주최한 이날 축하연에는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장애인당사자 65명 중 30여명이 참석해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의 의지를 다졌다.

또한 장애인단체 대표들과 장애인당사자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당선자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김정록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은 당선자들에게 “힘든

# 민선5기 지방자치에 거는 기대

## ‘지방선거 장애인당선자 축하연’ 열려... “장애인 위해 열심히 펼 것”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며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초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장애인당사자를 위해 의회에 들어갔다는 것을 잊지 말고 장애인 복지·권익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명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대표는 “LPG 지원제도 폐지, 적은 장애인 연금액 등 장애인 복지가 후퇴되고 있다”며 “이 자리에 계신 당선자분들은 서로 협력해서 장애인 복지 발전에 힘써야 한다. 지역 장애인 복지 발전의 개척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목포에서 시각장애인 시의원을 공천하는 과정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끝까지 시각장애인을 공천했고, 결국 시각장애인이 당선됐다.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된 장애인추천 정당 보조금 2억 6,700만원도 모두 민주당이 받았다”며 “여러분이 내년 장애인 연금 예산이 대폭 상승될 수 있도록 여당 의원들에게 잘 설명해서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민주노동당 곽정숙



지난 6.2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장애인당선자들을 축하하고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6.2지방선거 장애인당선자 축하연」이 지난 6월 24일 (목) 낮 12시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의원은 “정치 현장에서는 장애인 문제보다 정당 정론이 우선시되는 때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부디 정당을 초월해서 장애인을 위해 일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의회에 들어가시면 편의시설이 잘 설치돼 있는지부터 점검하시고 필요한 것이나 불리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당당히 요구하고 관철시키라”고 조언했다.

이에 민주당 성남시의원 정기영 당선자(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성남시지회 회원)는 “장애인당사자의 의회 진출은 지역 장애인복지의 발전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각 정당이 장애인 공천 할당제를 추진해 기초자치단체에 장애인 당선자가 더 많이 배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의회 의장석이 휠체어 장애인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열심히 일해서

4년 후엔 의장석에 올라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한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비롯한 4개 주최 단체는 지방선거가 끝난 후 “6.2지방선거 기간 장애인은 지역 장애인 현안 해결을 위한 크고 작은 가시적 성과를 이뤄냈다”며 “특히 장애인당선자 65명이라는 큰 성과를 이뤄낸 것이 향후 지역에 산적해 있는 장애인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한 바 있다.

## 장애인차량 LPG 지원사업 역사 속으로

### 6월 30일로 종료...장애계 “모든 연료 면세” 요구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이 시행 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보건복지부는 “2001년 7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LPG차량에 대한 세금인상분 지원 사업이 2010년 6월 30일 24:00를 기해 종료됨을 알려드린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LPG 지원제도가 종료되더라도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와 소득보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며,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지하철 등 이동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은 LPG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월 250리터에 한해 리터당 220원의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다.

정부는 2006년 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해 2009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장애인들의 반발이 거세자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했었다.

한편 현재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차량에 소요되는 모든 연료(LPG,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해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를 원천 면세하는 제도를 만들것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

## 이상민 의원 “양경자 이사장, 자진 사퇴해야”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최근 장애계 최대 이슈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양경자 이사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6월 24일(목)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장애계의 상징적인 자리인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에 장애인 이사장을 퇴임시키고, 비장애인인 양경자 전 국회의원을 선임한 것은 장애계를 무시한 낙하산 인사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양경자 이사장은 6월 23일 열린 ‘국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

회 전체회의’에서 장애인고용과 관련한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양경자 씨는 공단의 이사장으로서 자격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장애인고용문제는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하며 “양경자 장애인고용공단 신임 이사장은 스스로 사퇴하고, 이명박 정부는 장애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공단 이사장을 장애인당사자로 다시 선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 장애인연금 하위법령 고시...7월30일 첫 지급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5만원...차상위계층 14만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 산정 시 연금액은 제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이하 복지부)가 지난 6월 28일(월)자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해 고시하는 등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 시행에 들어갈 준비를 모두 마무리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장애등급 1,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해당 유형 외에 다른 장애가 하나 이상 중복된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복지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장애인에 매월 지급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5만원(기초급여 9만원+부가급

여 6만원)을, 차상위계층(기초급여 9만원+부가급여 5만원)은 14만원을 지급받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대상자는 최대 9만원을 지급받는다.

복지부가 5월 말부터 6월 11일까지 운영한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한 사람은 7월 30일에 첫 연금을 받게 되고, 8월부터는 매달 20일에 연금을 지급받는다. 집중신청기간 이후에 신청한 사람은 연금 지급이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

당을 지급받아온 사람은 별도의 장애등급 재심사나 신청 절차 없이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자동 전환된다.

이번에 고시된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은 장애인 연금을 신청한 사람으로 하되, 장애심사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의 심사를 받은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상태와 장애등급의 변화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을 위해 장애진단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연금 홈페이지(www.e-welfare.go.kr/pension)

을 받게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장애인연금액은 소득 산정 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보건

복지부는 장애인연금액을 수급자의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6월 28일(월)자로 확정해 고시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 ‘장애여학생 성폭행’ 장애인단체들 분노



울산장애인부모회가 기자회견에서 장애여학생 성폭행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6월 15일(화) 발생한 장애아동 성폭력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의 사건 축소 논란과 은폐 의혹을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이 지난 6월 28일(월)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울산 장애인부모회(이하 부모회)는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학교의 교장은 이번 사건이 아이들 사이에 불장난 같은 일이었다고 대답하며 대수롭지 않게 대처했다”고 해당 학교 학교장의 태도에 대해 비판했다.

부모회는 특히 장애아동 성폭력 사건을 일으킨 가해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이 사건을 알리고 다녔고, 학교 주변의 주민들 중 일부에게도 알려져 피해학생이 2차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소문일 뿐 모른다”라고 일축하는 이상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아동성폭행 사건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한 장애인부모들의 반응은 매우 격앙돼 있었다.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해 교육당국이 취한 대책에 대해서도 강력 반발했다.

부모회의 한 회원은 “분명한 재발방지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가해학생의 타 학

교 전학방침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울산교육청을 꼬집었다.

이어 부모회의 정윤희 회장은 “현재 완전 통합된 학교의 장애인교육은 완전방치와 완전히 동의어”라며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에서는 최소한 특수교사의 교육지원이나 특수교육보조원의 지원이라도 있으나 완전 통합된 학교에서는 어떠한 교육지원도, 안전지도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학교폭력이 심각하게 벌어지는 대다수의 학교는 이같이 특수교육의 사각지대인 곳에서 심각하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한편 부모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에 대한 요구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학교 관계자의 엄중처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모든 학교에 특수학급설치 및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정기적, 실질적인 장애이해교육 실시 및 장애-비장애 성교육 실시, 피해아동 심리치료 및 가해학생 가해자 교육 실시 등을 요구했다.

## “시설 거주기능 재정립...시설 정원 소규모화” 정하균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국회의원이 장애인생활시설의 거주기능을 재정립하고 시설 정원을 소규모로 제한하며, 시설 이용 절차 시 선택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최저기준을 규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화)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은 거주 기능과 함께 상담·치료·훈련·교육 등 여러 재활서비스를 같이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서비스를 못 받게 되거나, 외부의 다양한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돼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와 분리되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분석이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정원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생활시설이 대규모화되면서 시설 이용자들의 개별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자율성 감소나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지난 해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을 거쳐 완성된 ‘2010년 장애인복지(거주)시설 사업안내’를 통해 생활시설 서비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국회의원이 장애인생활시설의 거주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저기준이 안내되고 있지만, 권장사항에 그치고 있어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태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장애인 생활시설의 거주 기능을 별도 분리하고, 거주시설 이용 정원이 3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시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이용자 중심의 생활시설 이용 절차를 규정했고, 시설 서비스의 최저 기준 이상으로 서비스를 유지하는 등의 시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출처-에이블뉴스〉



# 인권위, 장애인 금전착취 및 학대 가한 시설장 검찰 고발

## 시설폐쇄 및 재발방지대책 권고...장차법이 적용된 첫 사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지난 6월 22일(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소재한 비인가 장애인 시설장 최 모(54·남) 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시설폐쇄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인천 소재의 한 장애인단체 대표인 신 모 씨로부터 “장애인 시설장 최 모(54·남) 씨가 장애인생활인들의 금전을 착취하고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01년 장애인비인가 시설을 만들어 운영해 왔으며 20여 명의 장애인(지적·뇌병변·지체·발달 장애)과 함께 지내왔다. 최 씨는 외부 인력을 따로 고용하기보다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 두 명과 함께 이 시설을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설은 4층 규모로 한 층당 35~40평 규모다. 1층은 사

무실로 사용하고 2, 3층이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생활공간이며 4층은 최 씨와 가족이 살고 있다.

조사 결과 최 씨가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개인통장과 도장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며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확인됐다. 계양구청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계좌에 수급비를 입금하면 최 씨가 통장 20여 개를 들고 직접 수당을 받아오는 식이었다.

또한 최 씨는 횡령한 장애인 수당을 배우자에게 주거나 자녀 교육비, 보험료, 법인업무비, 건축비, 변호사비, 양도소득세, 범칙금을 내는 식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횡령한 금액이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1억 1천 3백만 원에 달하며, 회계 증빙자료가 없거나 사용 용도가 불명확한 금액은 3억 2천 4백만 원에 이른다.

이 밖에도 최 씨는 자신의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제공한 경우도 있었고, 유통기한이 지난 밀가루 등 음식재료를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최 씨는 장애인 시설의 1층과 2층 사이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장애인생활인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손과 허리를 천으로 묶는 인권침해를 가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A씨가 장애인생활인들의 수급비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 행사 배제’ 및 ‘금전착취’에 해당할 뿐 아니라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씨를 검찰총장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 인천광역시장, 계양구청장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폐

쇄조치 등 A씨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고, 유사한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

이어 A 씨가 사적 용도로 사용해진 장애인생활인들의 장애수당 및 중증수당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일로부터 소급해 피해자들에게 즉시 반환할 것을 A씨에게 권고했다.

또한 인천광역시장과 계양구청장에 A 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행정조치를 권고하고, 최 씨가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2년 동안 횡령한 장애수당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를 담당한 정상훈 장애차별조사과 조사관은 “이번 판결은 지난 2008년 4월 실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적용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장애인생활인들의 금전을 착취하고 인권을 학대한 장애인시설장 최 모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시설폐쇄를 권고했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장애인 부당해고 상담 꾸준히 증가

### 2분기 전체상담 88건 중 37.5% 차지

장애인들의 부당해고 상담이 꾸준히 증가해 고용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가 올해 4월~6월 2분기 장애인노동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상담 88건 중 부당해고와 관련한 상담이 33건으로 전체의 37.5%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임금체불 13건(14.8%), 부당처우 12건(13.6%), 퇴직금 10건(11.4%), 실업급여 9건(10.2%), 산재 4건(4.5%) 순이었다.

부당해고 관련상담은 1분기보다 약 19% 늘어난 수치로 부당해고와 관련한 부당처우, 실업급여 관련상담까지 포함하면 약 61.3%를 에 이르렀다.

피 상담자의 전·현직 근무 사업장 규모는 10~19명과 20~49명이 37.5%로 가장 높았고 9명

미만이 23.9%를 차지한 반면 50~99명 사업장 근무자는 1.1%에 불과해 상담장애인의 98.9%는 50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돼 있었다.

피 상담자는 남성이 73.9%로 여성 26.1%에 비해 매우 높았고,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55.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뇌병변 12.5%, 시각장애 12.5%, 청각장애 10.2%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후원을 받아 지난 2005년 개소한 장애인노동상담센터는 장애인 고용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상담을 원하는 장애인은 전화 02-754-3871, 청각장애인 영상전화 070-7947-3125 또는 홈페이지(www.kesad.or.kr) 노동상담 게시판으로 신청하면 된다.

〈출처·에이블뉴스〉

## 한화, 장애아동 해양스포츠 캠프 개최



장애아동 해양 스포츠캠프에 참석한 장애아동과 한화그룹 직원들이 카약을 타고 있다.

한화그룹(회장 김승현)은 7월 7일(수)부터 9일(금)까지 2박 3일간, 제주도 한화콘도 및 함덕해수욕장 일원에서 장애아동 60명과 임직원 자원봉사자 80명 등 총 140명이 참여하는 ‘장애아동 해양 스포츠 캠프’를 개최했다.

“Great Challenge! 우리도

할 수 있어요!”란 테마로 개최된 이날 캠프는 한화그룹이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이사장 송자)와’ 2009년부터 3년 간 진행하고 있는 ‘한화 희망어울림’ 사업의 기획 행사로 열렸다.

특히 캠프에 참가한 전국 17개 장애인복지기관의 장애

아동들이 사회적응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한화그룹의 16개 사업장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캠프를 통해 장애아동들은 평상시 접하기 힘들었던 카약, 수영, 해변 운동회 등의 해양스포츠 활동을 통해 도전정신과 자신감을 고취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장애아동은 몸이 불편해 외부로 이동하기가 어려웠지만 해수욕장에 가서 여러 가지 해양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어 매우 좋아했다”며 “이번 여름행사 후 가을에도 태권도·배구·축구·댄스스포츠 등 해당 기관과 함께 장애아동들을 위한 종목별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의 장애인 죽이기 정책에 저항하기 위한 「MB 정부 장애인 죽이기 정책 저항을 위한 총 쫓기대회」가 6월 14일(월)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열렸다. (사진-장애인을 기반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투쟁을 선포하고 있는 김정록 중앙회장과 여의도를 뜨겁게 달군 1만 5천여명의 장애인들).

## 장애예술인의 등용문(登龍門), 「제23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201명의 장애예술인 참가...배성연 군, 대회 전체대상 수상

국내 최고의 전통과 규모를 자랑하는 『제23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가 지난 6월 25일(금) 오전 10시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강당에서 개최됐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노

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가 후원하는 ‘제23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는 장애인들의 예술적 소질과 재능을 개발함으로써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고 사회참여를 유도하며,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관심을 제고시켜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988년부터 개최돼왔다.

특히 작년까지 치러진 22회의 대회 동안 총30만 여명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했고,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희아 등을 배출하며 장애인예술가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등용문(登龍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경연은 미술, 글짓기, 사진 3

개 부문의 ‘사전 작품공모’와 대회당일 경연대회를 치르는 음악부문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는데,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의 접수기간동안 전국 1,262명의 참가자가 지역 예술제(지장협 16개 시·도 협회 지역 예술제)의 예선을 거쳐 글짓기 85명, 미술 58명, 사진 24명, 음악 34명 등 총 201명이 참가

했다.

미술, 글짓기, 사진 부문은 전국에서 사전에 작품을 접수하여 관련 전문가(대학 교수)가 심사해 우수 작품을 대회당일 시상했고, 음악부문은 전국에서 참가신청을 받아 예술제 당일 경연대회를 진행하여 우수 연주자를 시상하였다.



전체대상을 수상한 배성연 군의 연주 모습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서울대학교 정태봉 음악대학 학장과 서울대학교 전상직 음대 교수.



「제23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에 참가한 한 장애음악인의 연주 모습.





김정록 중앙회장이 대회 전체대상을 차지한 배성연 군에게 상장을 수여하며 격려하고 있다.



김정록 중앙회장과 「제23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의 수상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박종운 님의 작품 '기적'. 사진 부문 심사위원인 권영식 노필름 대표는 "잘 찍힌 사진 보다 사진가와 피사체와의 관계성이 깊은 '좋은 사진'을 우선으로 선정했다"라고 이번 대회의 심사기준을 밝혔다



미술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태호 씨의 작품

2010년 23회 대회 영예의 전체대상은 성내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배성연(15세, 발달2급) 군이 차지했다. 배 군은 연주하기 어려운 곡으로 유명한 쇼팽(Chopin)의 ‘에튀드 작품 10의 제12번(Etudes Op.10 No.12)’을 완벽에 가깝게 소화해냈다는 정태봉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장의 평가를 받으며 영예의 전체대상(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수상소감을 묻는 질문에 배성연 어머니는 “성연이가 네 손가락 회야, 또는 유진 박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유명해지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다만 좋아하는 피아노와 함께 성연이가 밝고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밝혔다.

이밖에 글짓기 대상에 이경애(여, 45세, 뇌병변3급) 씨, 미술 대상에 김태호(17세, 지적3급) 군, 음악 대상에 한재희(13세, 시각1급) 군이 선정돼 법무부·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번 대회를 개최한 김정록 중앙회장은 “예술작품에는 장애가 없다. 우리 장애인들이

도 재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면 시각장애인 가수로 유명한 스티비 원더(Stevie Wonder)처럼 세계적인 명성과 존경을 받는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다”고 격려했다.

이어 김정록 중앙회장은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를 장애인들의 ‘화수분’으로 만들어, 한국이 장애인 문화·예술의 선진국이 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 음악부문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서울대학교 정태봉 학장은 심사평을 통해 “참가자들의 수준과 연주곡의 난이도가 지난 해 대회보다 높아져 심사를 하기가 어려웠지만 날로 발전하는 장애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심사평을 전했다.

이어 “오늘의 대회가 누군가의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좋아하고 즐겨워하는 음악을 맘껏 즐기는 시간이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해마다 발전을 거듭하는 장애인 예술가들. 다음 대회에는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지 벌써 내년 대회가 기다려진다.

## 제21회 전국장애인예술제 수상자 명단

### ▲전체대상

순위	부문	상장	성명(나이/소속/장애)	연주곡
전체대상	음악	보건복지부장관상	배성연(15세/성내중학교/발달2급)	Chopin Etudes Op.10 No.12

### ▲각 부문 대상

연번	순위	부문	상장	성명	소속	비고
1	대상	글짓기	법무부	이경애	대전광역시	뇌병변장애 3급
2		미술	노동부	김태호	상희학교	지체장애 3급
3		음악	문화체육관광부	한재희	서울맹학교	시각장애1급

### ▲최우수상

연번	순위	부문	상장	성명	소속	비고
1	최우수상	글짓기	보건복지부	정강호	경남은혜학교	정신지체 2급
2			보건복지부	김은서	제천여자중학교	지체장애 1급
3			노동부	서봉수	경북영광학교	지체장애 2급
4		미술	보건복지부	윤은정	인천중앙병원	지체장애 3급
5			보건복지부	서민준	진주해광학교	지적장애 1급
6			보건복지부	김재갑	홍천군장애인복지관	뇌병변장애 2급
7		음악	보건복지부	고명진	불광중학교	지적장애2급
8			노동부	김유라	강원명진학교	시각장애 1급
9		사진	보건복지부	박종운	충남협회 천안시지회	지체장애 3급
10			노동부	순경환	서울특별시	지체장애 3급

### ▲우수상

연번	순위	부문	상장	성명	소속	비고
1	우수상	글짓기	대회장	김혜중	내일을여는 멋진여성 강원협회	지체장애 3급
2		미술	대회장	정웅영	경남은광학교	간질장애3급
3		음악	대회장	곽슬범	부명중학교	발달장애2급
4		사진	대회장	곽상필	제주특별자치도협회	지체장애 2급



장차법  
대응

##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적정화를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센터장 김정록)가 7월 말부터 오는 11월까지 「장차법 대응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적정화를 위한 실태조사」에 돌입한다.

이번 조사는 올해 4월 11일부터 장애인 체육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전국 체육시설의 실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본지는 7월 말부터 실시될 예정인 「장차법 대응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적정화를 위한 실태조사」 대한 주요 내용과 세부계획을 독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요원들이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가 열리는 잠실 주경기장의 관중석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있다.

지난 2007년 4월 10일 제정되어 이듬해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편의증진법과 동일하나 몇몇 시설 즉, 사업장, 교육기관, 문화·예술기관,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소유기관 및 규모별로 연차적으로 장차법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그 설치기준은 편의증진법의 설치기준과는 다르게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가능한 만큼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서 장애인들의 이용과 접근에는 편리하겠지만 예외 없는 규칙은 항상 무리가 따른다는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장차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편의증진법의 기준보다 더 ‘철저’하게 이용자들이 모든 생활영역에 장애물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차법 제18조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에서 편의증진

법 제7조의 대상시설물의 경우에는 2009년 4월 11일 이후에 신축·증축·개축되는 시설물에 한하여 편의증진법의 세부설치기준에 따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사업장, 교육기관, 문화·예술시설,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그 소유와 규모에 따라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에 맞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는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즉, 「장차법 대응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적정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협회) 편의센터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응한 체육시설인지 여부를 편의증진 전문기관에 의한 모니터링을 받아보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및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007년과 2008년에 실내형 및 실외형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이용 가능 환경 실태조사 및 리모델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그 중 실외형 공공체육

시설 장애인 이용가능 환경모델 구성에 대한 총평을 보면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다.

“전체적으로 조사된 내용을 분석할 때 실외형 체육시설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좋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접근성에 무리가 있는 곳이 많아 접근로 및 경사로의 설치가 필요하다. 관람석의 경우 조사대상 모든 시설이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지 않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설치 유도해야 한다.

또한 화장실 또한 실내형 체육시설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었으며, 설치된 곳도 규정에 맞지 않거나, 너무 멀리 설치되어 있거나, 다른 공공화장실을 같이 이용하는 실정이어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을 판단된다.

주차장의 경우 실외형 체육시설임으로 대지에 많은 여유가 있어 설치하는 데 무리는 없었으나 설치된 장소가 2곳 뿐이었고, 나머지는 장애인 주차장이 없거나, 다른 시설의 주차장을 함께 사용하는 실정이며 상당히 먼 거리에 설치된 경우가 있었다.

위생시설의 경우 샤워시설이 꼭 필요한 육상경기장, 축구경기장, 테니스장 중 육상경기장의 경우 별도의 시설이 없고, 체육광장 내 다른 체육시설의 샤워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축구경기장의 경우 전용 샤워장이 있었으나 남녀구분도 되어 있지 않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더더욱 되어 있지 않았다.

테니스장의 경우 서비스동 지하층에 남녀구분설치되어 있었으나, 장애인이 접근할 리프트나 엘리베이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이 사용하기 힘든 실정이었다.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여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경우 장애인 이용을 고려한 샤워·탈의 시설의 확보와 각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턱을 없애거나 적절한 경사로를 구성하여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실내·외에 적절한 휴게시설의 공간을 확보하고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여유공간이 확보되는 위치에 휠체어 사용자나 지팡이 사용자, 시각장애인 등을 고려하여 점자표기가 되어 있는 음수대·자동판매기 등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위의 조사결과에 의한 총평을 분석을 간단히 한다면, 장애인이 실외형 공공체육시설에서는 체육활동을 할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에 따라, 이렇게 총체적 분석을 통하여 그 이용가능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기존 조사와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다. 실제로 이용가능한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체크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편의시설과 관련된 실태조사에서 직접적으로 조사원에게 해당 조사시설이 이용가

능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조사는 없었다. 조사항목 속에서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는 있었어도 직접 조사항목으로 설정한 적은 없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편의증진법의 세부기준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이용불가능한 시설과 모두 충족한 것은 아니지만 이용가능한 시설과의 평가를 통하여 새로운 모델제시가 가능할 것이다.

이번 조사의 개요를 살펴보면 하자. 이번 조사의 목적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으로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설치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객관적인 현황조사 자료 필요하여 전국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대상 체육시설(국가 및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차법 적용대상 대상 체육시설 이하 “대상 체육시설”이라 함)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현황의 세분화된 기초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또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수립에 방향성을 제시하며, 세부방안으로 설치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향후 관련정책의 방향제시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책수립 및 관리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통계와 계량화된 실태조사표 개발과 적용으로



# 편의시설의 실태조사

기존의 편의시설 실태조사와 차별화된 설치현황 및 결과를 도출하는 것도 그 한 목적이 된다.

조사대상인 체육시설의 범위는 기존 편의증진법의 대상과는 별개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6조 제2항 관련 별표5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시기]를 근거로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국가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이다. 편의증진법상으로 면적이 500㎡이상인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 범위가 정해지는 것과는 달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여 년차별 단계적으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위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별표5의 시설의 종류 및 의무 적용시기는 <표1>과 <표2>와 같다.

<표1>의 체육시설에 설치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기존 편의증진법의 기준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기존 편의증진법의 기준은 매개시설의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내부시설의 출입구(문)과 위생시설의 소변기를 의무로 하며 그 외의 다른 편의시설은 설치하지 않아도 편의증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여 년차적 단계별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된 시설들은 편의증진법상의 모든 편의시설 종류를 설치하여야 하며, 추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모두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표2>에서 보듯이 전국의 모든 체육시설이 이번 조사대상의 범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2010년 4월 11일 기준으로 국가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이면 그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대상이 되면서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의 기준에 따른 체육시설의 유형은 22종이며, 그에 따른 국가 및 해당 지자체와 그 대상시

설 수는 <표3>과 같다. <표3>에 의하면, 간이운동장을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833개의 체육시설이 대상시설이 된다. 간이운동장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지역적으로 일부만 샘플로 조사하도록 할 것이다.

시·도별 대상 시설 수는 서울이 221개로 제일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기도가 177개이며, 지자체 규모와는 다르게 제주도가 세 번째로 많은 체육시설을 소유하고 있다. 제주도는 그 기후나 체육훈련에 필요한 특성상 체육시설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체육시설 833개와 간이운동장 표본시설 210개를 포함하여 전국 1,043개의 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조사할 것이다. 그 시기는 세부추진일정에 따라 진행될 것이며, 실제 현장조사는 2개월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그 자세한 추진일정은 <표5>와 같다.

추진일정 중 조사표는 두가지 면에서 지금까지 실시된 그 어떤 편의시설 실태조사와 차이가 있다. 첫째, 편의증진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편의시설 종류의 세부설치기준을 평가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의무와 권장으로 나누어져 있던 편의증진법의 조사와는 확연히 차별화가 된다.

두 번째로 위에서 언급했듯이 조사항목에 직접적으로 그 대상시설의 이용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하여 형식적 설치기준으로 인한 폐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7월 중에 모든 조사표개발, 조사원 교육 등을 마치고 7월 하순경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진행될 예정이다. 더운 여름, 모두들 휴가를 떠나는 시점에 진행되는 실태조사에 땀 흘릴 조사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그러나 이 모든 활동이 장애인

<표1> 편의시설의 종류

구분		시설설치 내용
공통필수	편의 시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른 매개시설 · 실내복도, 2층 이상일 경우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 내부시설 · 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소변기·세면대), 샤워실·탈의실 등 위생시설 ·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등 안내시설 · 관람석, 매표소 등 기타시설
	수영장	· 입수 편의를 위한 경사로·손잡이 등 입수보조시설 · 수영장과 연계된 탈의실 진입보조시설 · 탈의 및 샤워 보조기구 · 보조 휠체어
실내 시설	실내체육관	· 좌식배구지주, 골볼(Goal ball) 골대
	야외경기장	· 경기장 진입 시설
실외 시설	생활체육공원 등	· 공원 내 체육시설 접근로 등

※ 주의 : 위 표 중 공통필수 편의시설 항목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별표 2에 따른 매개시설”로 보아야 한다.

<표2> 체육시설 단계적 적용시기

적용시기	적용범위
2010년 4월 11일	국가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2년 4월 11일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5년 4월 11일	인구30만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표3> 유형별 대상시설 수

전국	육상경기장	축구장	하키장	야구장	사이클경기장	테니스장	씨름장	간이운동장	구기체육관	투기체육관	생활체육관
833	49	140	11	35	11	95	8	210	85	19	91
전체합계	전천후게이트볼장	수영장	롤러스케이팅장	사격장	국궁장	양궁장	승마장	골프연습장	조정카누장	요트장	빙상장
1,043	41	100	35	10	34	14	9	22	3	6	15

<표4> 시·도별 대상 시설 수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33	221	48	48	30	37	40	20	177	5	19	31	30	6	18	25	78


<표5> 체육시설 실태조사 추진일정

구분	월별 추진일정									
연구내용	7월	8월	9월	10월	11월					
조사표개발										
입력용 툴개발										
교육교재제작										
조사원 교육										
현장조사										
조사자료 입력										
자료확인 및 검수										
보고서 작성										
관계자회의		1차						2차		

의 이동과 접근 등 물리적 환경장벽을 제거하여 장애인에게 평등한 기회부여와 완전한 사회참여의 길을 열어 가는데 단초가 됨을 생각해 주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기사제공

지체장애인편의시설중앙지원센터  
홍현근 팀장







7월부터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 구입한 보장구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소급받을 수 있게 된다.

## 보건복지부, 등록 전 구입한 보장구도 건강보험 적용

7월부터 장애인등록 전 구입한 보장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를 소급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약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에 대해 장애인등록 후 보험급여를 소급

해 적용되고, 의안의 경우 기존 1인당 1회 1개에만 보험급여를 인정하던 것에서 양쪽으로 의안을 장착하는 경우 각각에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고시에서 정하고 있던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의 범위는 법령에 규정된다.

중증 화상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도 줄어든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고시해 7월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화상환자의 본인 부담률은 입원 시 20%, 외래진료 시

30~60%이었는데, 각각 5%로 인하된다.

이 특례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공단에 신청·등록해야 하며, 진단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확진일로부터 소급해 적용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적용받는다.

또한 오는 10월부터 관련 규정을 개정해 뇌병변장애, 지체장애에만 인정했던 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의 급여적용이 심장장애와 호흡기장애로 확대되고, 소모품인 배터리도 급여항목에 포함된다.

〈출처-에이블뉴스〉

## '2010 장애인 무료해변캠프' 운영

서울시는 7월 15부터 8월 15일 까지 중증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하여 한여름 무더위를 피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는 '2010 장애인 무료해변캠프'를 운영한다.

'동해의 맑은 물과 백사장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마을' 강원도 고성군 명파리 해수욕장에서 운영되는 장애인 무료해변캠프는 올해로 17회째로 매년 참여인원이 10%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09년에는 1만5천여명이 참가하는 등 성황을 이루고 있다.

동해안 최북단의 청정지역에 위치한 명파리 해수욕장은 약 1,000평 규모로 장애인 및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로 인한 제약이나 불편함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휠체어 전용 이동로(파렛트), 장애인용 화장실, 샤워장이 설치된다.

또한 숙박용 텐트(가족용, 단체용 등 31)와 취사도구(가스버너, 식판, 식수) 등 물놀이 안전용품 등이 무료로 제공된다.

특히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24시간 수상안전요원을 상주 배치하였으며, 캠프내 모든 시설과 해변을 연결하는 이동통로(바닥과

레트)와 해중 퇴치기도 설치하여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이동경로에 RFID가 장착된 점자 유도블럭 및 엔젤보이스를 비치하는 등 시각장애인도 편리하게 이동 가능하도록 '보행안내시스템'도 완비하였다.

단체참가자를 위해 행사무대,

빔 프로젝트, 노래방 기기를 대여해 주고 한국침선교회에서 한방 무료시술, 해변에서 영화도 감상할 수 있도록 해변시네마, 지역주민과 어우러진 해변마당 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하다.

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하다.

장애인 무료해변캠프는 민간봉사단체인 곰두리봉사협회에서 운영하며, 참가를 희망하는 장애인 및 가족들은 서울특별시 장애인홈페이지(<http://friend.seoul.go.kr>)나 곰두리봉사협회 홈페이지(<http://komduri.or.kr>)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행사 주관단체인 곰두리봉사협회에 FAX(02-952-9001)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과 ☎02)3707-8350〉



지난해 '장애인 무료해변캠프'에 참가한 한 장애인이 안전요원들의 도움을 받아 해수욕을 즐기고 있다.

## 현대차, 장애인 치과 이동 진료 지원



차량 및 의료기기 전달식에 참석한 강지원 푸르메재단 공동대표(왼쪽)와 이영복 현대.기아차 사회문화팀장

현대자동차가 지난 6월 24일(목) 종로구 신교동 푸르메 나눔치과에서 장애인 치과 이동진료를 위한 차량과 의료기기를 비영리 공익재단인 푸르메재단에 기증했다.

이번 기증은 장애와 경제적인 문제로 구강 치료를 방지하는 장애인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해주는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기증품은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스탠다드 1대와 이동식 치과 진료

장비 2세트다.

현대차 관계자는 "장애인 활동제한 요인 중 5위를 차지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장애인 치아 건강을 위해 차량과 의료기기를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와 푸르메재단이 참여한 '푸르메 미소원정대'는 6월 27일부터 강화도 우리마을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무료 순회진료를 진행하고 있다.

## 서울시, 장애인연금제 도입해도 수당 계속 지급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7월부터 새로 도입하는 장애인연금 제도에도 불구하고 시 예산으로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추가 지급해 온 장애수당 3만원을 계속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장애인연금 제도의 도입으로 그동안 국비와 시비 50%씩 부담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던 장애수당이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된다.

이와는 별개로 시가 100% 부담으로 추가 지급하여 오던 장애수당 3만원은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되지 않지만 서울시는 장애인 소득보전을 위해 지원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제도 시행 이전인 지난 6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수당을 받아 왔던 중증장애인은 7월에도 시에서 추가 지급하는 장애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또한, 7월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경우는 장애인연금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으로 장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2만6500여명의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과 더불어 장애수당이 계속 지급됨에 따라 작지만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수당을 계속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연간 92여억원 정도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오세훈 시장이 민선5기 취임사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우선으로 따지고 챙기겠다는 약속에 대한 첫 단추를 꿰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문의: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과 ☎02)3707-8350〉









## 민원상담 Q&A



-기사제공-

중앙회 이춘희 여성정책팀장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질문이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장애인당사자분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홈페이지(<http://www.kappd.or.kr/>) 민원상담실에 질문사항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 : ☎02)2289-4320

### “국방부와 정부의 장애등급 차이점에 대해”

**Q)** 신체검사에 한쪽 눈으로 인해 '5급' 판정을 받았습다. 그리고 안과병원에서도 시력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신경이 살았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수술해도 신경이 좋아진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장애등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어느 병원으로 가야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신체검사 시 장애등급과 일반 장애등급은 적용하는 법과 목적이 다릅니다.

신체검사의 목적은 피검자의 상태가 군 복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은 의료적인 관점에서 신체 내, 외부의 기능이 정상범위 기준으로 얼마나 상실되었고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얼마나 지장을 받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검사 시 장애등급이 일반 장애등급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시각장애 판정기준에 의하면 한쪽 눈을 완전 실명해야 6급 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을 정확하게 판정받기 위해서는 국, 공립 병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구요. 국립재활원, 서울의료원, 서울보훈병원, 경찰병원, 적십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증장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저는 병원에서 좌·우·무릎 관절을 인공관절로 시술한 만69세의 남자입니다. 양반다리로 앉을 수가 없어 의자와 침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지체장애 4급이 나왔고 복지카드도 받았습니다. 부인과 저 둘이서 살고 있으며 노동은 일체 못하고 있습니다. 지인에게 알아보니 경증장애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거라 하기에 문의를 드립니다.

**A)** 장애수당은 기초생활수급권자(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 장애1급~2급 및 3급 중복지장애인은 15만원의 장애연금이 나오고, 4급~6급 장애인은 3만원의 장애수당이 지급됩니다.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수급권자 선정과정(주소지 주민자치센터)을 거쳐야 합니다. 본인 가구의 재산과 소득 그리고 자녀분들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

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으면 국가가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장애등록만으로 수당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신청을 먼저 하여야 합니다.

서울기준으로 재산은 5,400만원 이하여야 하고 2인 기준으로 소득은 858,747원 이하여야 수급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가스요금 할인에 대해”

**Q)**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지체장애인입니다. 장애인 복지제도 중 '도시가스 요금' 할인도 있나요?

**A)** 장애인 도시가스 할인은 1급~3급 등록장애인에 한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1m3당 81원이 할인되며 총 사용금액 대비 대략 12%정도 할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공급받고 있는 도시가스 회사에 도시가스 감면신청서와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 고용정보

	업종	업 체 명	근무지	연령	성별	근무내용	급여	보험	연락처	담당자
1	생산직	세진	중랑구 망우3동	30~50세	무관	가방제조생산보조	860,000	4대보험	2289-4321-2	한은희
2	미화직	(주)라이프산업	남양주시 진접 금곡7리	66세이하	여	아파트 청소	720,000	4대보험	2289-4321-2	한은희
3	생산직	(주)씨피엘	안산 단원 화정	20~60세	무관	생산직	860,000	4대보험	2289-4321-2	한은희
4	캐드직	송신이앤씨(주)	부천시 원미구 상동	35세이하	남	공무,캐드	1,500,000	4대보험	2289-4321-2	한은희
5	상담직	안마닥터119	도봉구 창동	30대이하	여	콜센터전화상담	1,300,000	4대보험	2289-4321-2	한은희
6	서비스직	나라개발시스템	서울	60대이하	남	소독원	1,200,000	4대보험	2289-4321-2	손가람
7	서비스직	나라개발시스템	서울	60대이하	여	아파트 방문소독원	800,000	4대보험	2289-4321-2	손가람
8	경비직	(주)동익	서울	65세이하	남	아파트 경비	1,000,000	4대보험	2289-4321-2	손가람
9	경비직	국제안전시스템	서울	67세이하	남	아파트 경비	1,000,000	4대보험	2289-4321-2	손가람
10	경비직	티지엠	의정부	67세이하	남	아파트경비	1,100,000	4대보험	2289-4321-2	손가람



## 사진작가 권영식의 '즐거운 디카세상'

# "카메라도 여름 휴가 장비가 필요합니다"



2010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장장애인기능경기대회 시상식.

「서울특별시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가 지난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성동공업고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대회는 지역 내 우수한 기능 장애인을 발굴·육성하여 기능 수준 향상과 직업 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장애인의 기능 존중 풍토 조성 및 사회 일반의 인식 제고 및 현대 산업 사회에 부응하는 기능 인력의 저변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24개 직종에 367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각자의 기량을 겨루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모든 선수가 열심히 실력 발휘해주었으며 우수한 성적과 결과로 알찬 대회가 되었습니다. 전국대회 및 세계대회까지 그 기량을 펼쳐 주시길 기대하며 아깝게 수상하지 못하신 선수 분들께는 내년을 기약해 봅니다.

### ■ 여름방수용품

오는 듯 가버린 봄바람을 뒤로하고 어느덧 여름휴가 준비로 들뜬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여름이 되면 장마를 비롯하여 물과 가까이하게 되는 계절이며 고가의 기기인 카메라에게는 그리 반갑지 않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일이지만 몇 백 만원을 주고 구입한 카메라를 가지고 들뜬 기분에 계곡을 찾았다가 물속에 익사(?)시킨 필자의 안타까운 기억이 늘 생각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추억을 만들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호에는 여름여행에 도움이 되는 방수장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던 2000년도부터 '방수팩'에 대한 수요가 많았으나 몇 종류뿐이 없었으며 그나마 가격이 너무 고가라 구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디지털카메라 및 휴대폰 MP3 등 전자기기들이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 방수



소형 카메라용 방수팩 (썬퓨전 FnC. (판매 : 11번가, 가격 : 4,670원))

팩의 수요도 늘었고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은 OEM으로 중국에서 제조된 국내브랜드와 영국 직수입품, 제조원이 불분명한 저가의 상품 등 많은 상품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카메라의 경우 소형 디카용과 렌즈 교환이 가능한 DSLR용 그리고 줌링과 수동 초점 조절이 가능한 방수 팩까지 판매 되고 있습니다.



줌 가능 소형 카메라용 방수팩. (제조원: 알 수 없음, 판매 11번가, 가격: 1,340원)

방수팩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방수기능이 확실한지 잠금 장치가 완벽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렌즈부의 투명도 등도 점검 대상입니다. 단순히 벨로크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것과 지퍼팩형, 별도의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것 등 재질과 형태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용 목적을 먼저 정한 후 제품을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줌 가능 DSLR용 방수팩. (제조원:디카팩, 판매처: GS SHOP, 가격: 82,450원)

방수팩의 첫 번째 목적은 기기를 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간이로 물속에서 촬영 하자는 것 입니다. 말 그대로 간이로 사용가능 하다는 것이지 전문적으로 수중촬영까지는 힘들다는 게 제조사들의 설명입니다. 각 기기들은 각자의 목적에 맞게 제조 되었으며 그 목적에서 벗어나면 원래의 기능을 발휘하기는 힘듭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이면 물속 풍경을 담아 보고 싶은 생각에 이런 방수팩을 찾고 있지만 필자의 경험으로 말씀 드리자면 결과는 기대와 달리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줌 가능 DSLR용 방수팩. (제조원:아쿠아팩 영국, 판매처: 11번가, 가격: 85,000원)



### 권영식

(edstudio@edstudio.co.kr)

스튜디오 포토매직 대표 역임  
노필름 대표  
이동스튜디오 대표  
13~19회 서울국제촬영제마라톤 대회 공식 촬영  
010-2063-6001  
www.EDstudio.co.kr





공연 중인 스티비 원더(Stevie Wonder)

## 장애를 딛고 세계적인 가수로 우뚝 선 스티비 원더

### 외로운 아이

미국 미시간 주 새기노의 작은 마을에 시각장애가 있는 한 아이가 있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스티비 원더(Stevie Wonder), 이 가난하고 앞 못 보는 소년에 게는 아무도 친구가 되어 주지 않았다.

오히려 “야! 장님이 재수 없게 밖에는 왜 나왔냐?”며 그를 비웃고 놀려댔고 이 아이는 반에서 따돌림을 받아 늘 외롭고 힘없이 지내야 했다. 이 소년은 외로웠다. 그리고 남들과는 다른 자신의 현실을 원망했다. 그러나 그의 장애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해 준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 인생을 바꿔버린 선생님의 한마디

그가 초등학교생이었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수업중인 교실에 쥐가 한 마리 나타났는데 어디로 숨었는지 도무지 보이지 않았다. 여자 아이들은 비명을 질러 대며 책상 위로 올라갔고, 선생님과 남자 아이들은 쥐를 잡으려고 뛰어다녔다.

교실은 그야말로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렸습니다. 쥐는 순식간에 자취를 감춰버렸고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교실을 보며 선생님은 쥐가 교실 안에 있는 채로 수업을 다시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생님은 스티비 원더(Stevie Wonder)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숨은 쥐를 이렇게 말했다.

“너는 보지 못하는 대신 남들보다 청력이 발달했을 거야. 그러니 귀를 잘 기울여서 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아내 보렴”

순간 스티비 원더(Stevie Wonder)나 다른 아이들은 어리둥절했다. 눈도 보이지 않는 아이한테 귀의 감각만을 이용해서 쥐를 찾으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아이는 귀를 기울여 교실 구석의 벽장에서 새어 나오는 쥐 소리를 감지하는데

성공한다. 쥐가 숨어 있는 곳을 찾아낸 것이다.

### 넌 소중한 능력을 갖고 있단다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은 그 아이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이젠 알겠니? 넌 우리 반의 어떤 친구도 갖지 못한 능력을 갖고 있어. 네겐 특별한 귀가 있잖니!”라고 말하며 그를 격려했다.

이 말은 어린 스티비 원더(Stevie Wonder)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에게 장점이 있다고 말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너같이 가난한 아이는 그렇게 될 수 없어!”, “너는 흑인이어서 안 돼!”, “너는 장님이라서 안 돼!”라는 말로 그의 꿈을 비웃었다. 그 격려의 말 한마디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그 후 아이는 자신의 남다른 청력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에 대한 꿈을 키워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소년은 11살에 모타운 레코드사 오디션에 합격하고, 12살에는 앨범을 발표하여 최연소로 당당히 빌보드 차트에 올랐다.

그리고 1984년 그의 음악 인생 중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를 발표하게 된다.

###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I just called to say how much I care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And I mean it from the bottom of my heart

(난 그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전화했어요.

내가 얼마나 당신을 아끼는지 말하려고 전화했어요..

난 그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전화했어요.

이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에요)

스티비 원더(Stevie Wonder)의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중...

스티비 원더(Stevie Wonder)는 독창적 창법이 매력적인 미국의 가수·작곡가·악기 연주자로 여러 악기를 능숙하게 다루었고, 새로운 세대의 전자 키보드 악기를 받아들인 선구자로 꼽힌다. 특히 20세기 후반 가장 창조적인 음악가의 한 사람으로 평가 받고 있다.

스티비 원더(Stevie Wonder)는 30개 이상의 TOP 10 히트곡을 냈으며, 총 21번의 그래미 상(Grammy Award:미국 레코드 예술 과학 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Recording Art and Sciences/NARAS)과 해마다 우수한 레코드와 앨범을 선정하여 주는 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로큰롤 명예의 전당 및 작곡가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을 정도로 성공한 가수이다.

특히 흑인음악 최초로 신디사이저를 사용했던 그는 인종차별과 영적인 문제, 사랑과 이별 등의 폭넓은 가사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고 신디사이저의 맛을 가장 잘 소화한 가수라는 평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는 선천적인 시각장애를 딛고 천재적인 음악성으로 팬들을 사로잡은 최고의 Soul가수로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 2번째 이야기...Isn't she lovely?

스티비 원더(Stevie Wonder)의 ‘Isn't she lovely’는 자신의 딸에 대한 사랑이 듬뿍 느껴지는 곡으로, 곡 중간에 아이의 웅얼이까지 녹음하여 전 세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만든 곡이다. 그만큼 딸 아이에 대한 그의 사랑이 노래에 가득 담



선천적인 시각장애를 딛고 세계적인 가수로 우뚝 선 스티비 원더(Stevie Wonder)

긴 것이다.

그런 그에게 어느날 의학계가 “당신의 눈을 고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고 제안을 한다. 의사의 말에 바로 검사에 들어간 그는 “내 딸의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꼭 수술을 하고 싶다”며 수술에 대한 의지를 밝힌다.

하지만, 검사결과는 안 좋았다. 혹, 수술이 성공을 하더라도 약 10분 정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스티비 원더는 단호했다. “단 1분이라도 좋소. 내 딸을 볼 수만 있다면...”

수술은 실패했고 그가 그토록 원하던 10분마저도 볼 수 없었다.

수술을 받고난 후 딸아이를 쳐다봐도, 그간 시세포가 너무 많이 파괴된 나머지 끝내 딸아이를 볼 순 없었다. 그러나 그의 앞에 딸아이는 자기가 딸을 보고 있는 줄로 알았기에, 딸에게 안 보인다는 말을 할 수는 없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웃었다. 그것은 아마도 영영 보고 싶던 딸의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딸아이의 손의 감촉과 마음은 그의 눈을 넘어 마음으로 보였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 칼럼

## 장애인 섹스 자원봉사?

조윤경(장애인 푸른 아우성 대표)

장애인 단체들은 지금과 같은 시혜 위주의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기로 했다. 대신 4월20일을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로 규정하고 장애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다양한 투쟁활동을 벌이고 있다.

장애·인권·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 공투단)은 올해 투쟁 목표로 정부의 부당한 활동보조 지침계약으로 정했다. 이는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가 올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본인 부담금을 올리고 장애등급심사를 의무화하는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420 공투단은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정부의 활동보조 지침계약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공개하고 인권위에 관련 내용을 진정하기로 하고 또 오는 20일에는 인권위 앞에서 관련 내용으로 결의대회를 개최 했다.

즉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 불쌍한 장애인에게 먹을 것 던져 주고 사

진 찌는 날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 생활시설에 격리되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되찾는 날”이다.

4월 20일 관련 행사 중에 올해 장애인 성을 주제로 한 영화, ‘섹스 불몬티어’가 개봉을 했다. 그동안 섹스 불몬티어 문제는 즐기게 거론되어 왔지만 언론의 한계 때문인지 너무 일부분만 기사화 되서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은 왜곡해서 인식될 소지가 있다. 장애인들은 성생활을 못하고 불쌍하니까 봉사해주자, 라고 말이다. 물론 아직 사회와 소통, 교육기회, 차별, 편견, 경제력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애인들은 성을 인지하고 욕구를 해소할 방법과 통로가 부족한게 현실이다.

하지만 권리를, 눌러왔던 욕망을 건강하고 밝게 풀어가려면 장애인 당사자들과 비장애인, 사회구성원 모두가 올바른 성 가치관을 갖고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성에 높은 가치를 매겨야 한다.

성 봉사는 다른 말로 동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장애인들도 일시적인 동정만으로 살 수 없고 그것을 욕구충족이라고 느끼지도 않는다. 장애인의 성 또한 '장애인'이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의미이며 더불어 '장애인의 성'은 더더욱 어떤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하는지 깊이 고민해 봐야한다.

그것은 인권의 문제이며 성매매의 문제이자, 여성의 문제이자, 저소득층의 문제이다. 결국 장애인의 성적권리를 찾다는 의미는 퇴색되고 오히려 힘과 돈 있는 사람에게 성적권리를 빼앗기게 결과가 되어버린다. 정체성은 무시한 채 장애인이라는 것만을 우선시하여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의 일원임을 무시하고 장애인이라는 집단으로만 분류되기 바라는 결과가 되

는 것 이다.

(성관계까지 해주는)섹스 도우미와 공장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누구의 성도 돈과 동정으로 값을 매겨서는 안되며 성적권리를 위해 다른 사람의 성을 도와주거나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성 도움을 주시겠다는 분들 함께 생각해 보자. 만약 김스를 하게 되어 만남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해서 성 봉사를 받겠는지.

장애인의 성은 장애만을 기준으로 보지 말고 성을 중심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 라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돕는다는 마음보다 서로 좋아하고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겠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장애인 푸른 아우성  
조윤경 대표

2000/10- : SBS '그것이 알고싶다' 출연  
2000/1~2002.1 : 뇌성마비 모임 '어우러기' 회장  
2001/12- : '인간극장' 출연  
2002/4- : KBS '아침마당' 출연  
2002/5- : 장애인 정보광장 '동인' 회장  
2003/3~2003.10 :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프랜즈 케어' 소장역임  
2004 : 서울 디지털 대학 상담심리학부 재학  
2005 : 에이블 뉴스 조윤경 성 칼럼 연재  
2008- : '새보람' 조윤경 칼럼 연재  
현 도봉푸른장애인독립생활센터 대표

## 독자투고

이경애(女, 45세, 뇌병변 3급)

본지에 게재된 “아들아 미안해”는 지난 2010년 6월 25일(금)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의 주관으로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개최된 『제23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에서 글짓기 부문 대상(법무부장관상)을 수상한 이경애(여, 45세, 뇌병변 3급) 씨의 작품으로, 자랑스러운 아들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이 듬뿍 담긴 작품입니다.

## “아들아 미안해”

저는 아주 잘생기고 마음씨 착한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큰 아들은 작년 4월에 입대해서 국가를 지키고 있고 작은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리고 저는 뇌병변 장애 3급 장애인 주부입니다.

장애인이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비장애인 엄마들 보다 몇 천배 어렵고 비장애인 엄마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가슴 아픈 일이 많습니다.

큰 아들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일입니다. 학교 급식 당번을 하기 위해 학교에 갔는데 제가 염려하고 걱정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 모두가 저를 동물원의 원숭이 보듯 신기하게 쳐다보고 심지어 어떤 아이는 저를 보다가 넘어져 음식이 사방으로 튀고, 그 아이는 울고... 결국 그날 급식 당번은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내처지가 너무나 싫었고 제 모습 자체를 가방 속에 넣어 땅속 깊이 묻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낳아 준 부모님 원망도 해가며 소리 내어 통곡을 했습니다.

한참 후에 큰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아들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할 만큼 크게 놀랐습니다. 아들 입술은 복어배같이 부어올랐고 얼굴, 팔, 여기저기는 상처투성이였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너희 엄마는 이상하게 생겼으며 장애인 바보라고 놀려서 싸웠다고 합니다. 저는 상처에 약을 발라주면서 피는 물을 삼켜야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가만히 물어 보았습니다.

“아들 엄마가 창피하지?”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들은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엄마가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은 있지만 엄마를 부



지난 6월 25일 열린 제23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에서 글짓기 부문 대상을 수상한 이경애 씨(오른쪽 두 번째)

끄럽거나 창피하다고 생각한 적은 한번도 없어요. 친구들이 엄마를 장애인이라고 놀려도 저는 하나도 창피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아요.” 라고 힘 있게 말하며 씩 웃던 든든하고 착한 큰 아들, 저는 아들을 껴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 너무 일찍 슬픔을 알게 해서 미안해. 너무 일찍 눈물을 흘리게 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그런 일이 있고나서 학교가기가 겁이났습니다. 저야 늘 당하는 사람들의 시

선이지만 제 자식에게만은 그런 아픔을 주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양해를 구해 급식당번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들은 못난 엄마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조금도 엄마를 미워하거나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예쁘고 제일 똑똑하다고 늘 말을 하곤 합니다. 정말 저는 행복하고 복 많은 엄마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 ‘후원’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원동력

## 워렌 버핏, 자선단체에 ‘2조 3천억’ 기부 ‘재산 99% 기부’ 약속 이행 중, “재산 절반 사회로 돌리자”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미국 억만장자 워런 버핏(Warren Edward Buffett, 기업인)이 5개 자선단체에 19억3천만 달러(약 2조3천681억 원) 상당을 기부했다.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인 버핏은 지난 1일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하 게이츠 재단)에 금년 기부분으로 버크셔 해서웨이 B 클래스 주식 2천40만 주를 기부하는 등 5개 자선단체에 이 회사 주식 2천450만 주(19억3천만 달러 어치)를 기증했다.

게이츠 재단에 넘긴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셔우드 재단’ ‘하워드 G 버핏 재단’ ‘노보 재단’ ‘수전 톰슨 버핏 재단’ 등 버

핏 자신과 세 자녀가 운영하는 자선재단에 기부했다.

게이츠 재단은 전염병 퇴치, 저소득자 가계 및 학자금 지원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해 백신개발 등에 30억 달러를 썼다.

또한 수전 톰슨 버핏 재단은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번 기부에 따라 올해 79세인 워런에게 남은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은 A클래스주식 35만 주와 B클래스 주식 5천40만 주다.

지난 2006년 게이츠 재단에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 2천500만 주를 기부하면서 재산의 99%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공

언한 버핏은 이후 매년 7월 약속에 따라 남은 재산의 5%를 이들 재단에 기부하고 있다. 현재 워런 버핏이 보유한 재산은 2010년 현재 47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한편 버핏과 게이츠는 지난 6월 16일(수) 미국 억만장자들에게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기부하자고 촉구했다.

<로이터>통신 등 언론들은 두 사람이 미국 억만장자들을 대상으로 ‘기부 서약’이라는 이름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16일 전했다. 경제전문지인 <포천>은 <포브스>가 매년 선정하는 미국 부자 리스트에 오른 인사들 400여명이 그 대상이며, 미국 억만장자들이 게이



자선단체에 ‘2조 3천억’ 기부한 워렌 버핏(Warren Edward Buffett, 왼쪽).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Bill Gates, 오른쪽)는 지난달 16일 미국의 억만장자들에게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기부하자고 촉구했다.

츠 등의 기부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기금이 6000억달러(726조 5400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게이츠와 버핏은 이들에게 개인 재산의 최소한 절반 이상을 ‘생존 기간’ 또는 사망 시 기부한다는 내용을 서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캠페인에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 패티 스톤시퍼는 이미 부동산·건설부호인 엘리 브르도, 벤처기업가인 존 도어, 미디어그룹 경영자인 게리 펜

페스트, 세계최대의 네트워크 장비기업인 시스코의 전 회장인 존 모그리지 등이 서약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포브스> 추정 57억달러의 재산가인 브르도와 그의 부인 에디트는 이 서약에서 생전과 사후에 걸쳐 75%의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또 렌페스트는 재산의 65%에 해당하는 8억달러 이상을 기부하기로 했다.

〈출처 - 연합뉴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전국에 16개 시·도 협회와 232개 시·군·구 지회를 두고 있는 비영리 순수 장애인단체입니다.

또한 이 나라 480만 장애인들의 질 향상과 자립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각종 교육사업, 장애인예술회 및 중증장애인배우자 초청대회, 장애인자립작업장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대한민국 장애인복지 선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장애인복지를 꽃피우고 이들이 다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으로 확신하며 ‘사랑 나눔 운동’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 ■회원구분

일반회원 (2천원/월)	일반회원2 (5천원/월)	일반회원3 (1만원/월)
특별회원1 (3만원/월)	특별회원2 (5만원/월)	특별회원3 (10만원/월)
단체회원 (연 20만원이상)	기금회원	물품회원

### ■후원금 납부방법

- 지로, 자동이체
- 후원계좌 : 국민 822-01-0136-451  
농협 033-01-174991

※ 후원금은 연말에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후원신청

- ① 전화신청 : ☎02)796-4280
- ② 홈페이지 신청  
협회 홈페이지(<http://www.kapdd.or.kr>) 접속 - 나눔마당 - 후원신청

### ■2010년 6월 후원자 명단(가나다 순)

김경희, 김구환, 김유경, 김정빈, 김진호, 남용원, 남혁우, 민박상조희, 박소연, 박정현, 선병욱, 손영주, 송현, 신세계인천점, 신영숙, 양순연, 오현태, 유유미, 유재복, 윤순애, 윤채환, 이강구, 이민수, 이상돈, 이수현, 이운상, 이은정, 이지수, 이효민, 임채중, 임철현, 전원철, 정은연, 조태동, 주명희, 주승운, 주영래, 주영우, 최문선, 최인준, 허찬

(후원자님이 후원해 주신 후원금은 480만 장애인들과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 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 후원자에게는 ‘월간 새보람’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응  
모  
요  
령

‘★’에 있는 말로 단어를 조합해 우편엽서에 정답을 적어 보내 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홍보협력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답  
힌  
트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또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사람을 실어 나르는 의자식의 탈것.

	★ 1		2		3	
4			5			
		6			7	8
9	10			11		
			12	★	13	
14		15				
		16	★		17	



## 지난호 정답

	★ <sup>1</sup> 고				<sup>2</sup> 겨	레
	<sup>3</sup> 소	화	<sup>4</sup> 기		울	
<sup>5</sup> 환	영		<sup>6</sup> 하	소	연	
절			학		가	
<sup>7</sup> 기	★ <sup>8</sup> 만					
	찬		<sup>9</sup> 주	직		
	<sup>10</sup> 회	계	사		★ <sup>11</sup> 규	명

## 6월호 정답

고 만 규

김인영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차명호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송민자 경남 마산시 창포동

## 당첨자

## | 가로열쇠 |

- 영어로 “혈통” 또는 “계보”란 뜻이다. 신일숙의 만화 원작을 바탕으로 만든 한국의 대표적인 온라인게임.
- 세모창의 자루, 갑집, 활집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원본의 내용을 전부 베끼. 또는 그런 서류.
- 중국 베이징 [北京]에 있는 청(淸)나라 황성의 남면 정문.
- 눈을 밝게 해준다는 뜻에서 유래된 식물. 북아메리카가 원산이며 약용으로 재배한다.
- 일정한 조건에 따라 자료 따위를 분류·구분하는 일. ‘분류’, ‘정렬’로 순화.
- 문화 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가 뛰어난 사물.
- 각기 다른 모양으로 붙어 있는 4개의 블럭을 차곡차곡 쌓아서 빈 칸 없이 채우면 사라지는 퍼즐형 컴퓨터 게임.
- 세자의 스승으로서 덕행이 높고 학문이 뛰어난 재상급에 속한 신하가 임명되었다.
- 짐승, 특히 소의 네 다리째. 주로 몸을 보신하는 데 쓴다.
- 일정한 장소에서 골짜개로 공을 쳐서 가장 적은 타수로 홀에 넣는 경기.
- 눈 위를 지치는 데 쓰는 좁고 긴 판상(板狀)의 기구.

## | 세로열쇠 |

- 끈이나 띠 모양의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
- 하늘의 뜻을 앎. 신 살을 달리 이르는 말.
- 범죄 수사나 치안 유지를 위하여 군인이나 경찰이 통행인을 막고 인적 사항을 묻거나 소지품 및 차량 따위를 검사하는 곳.
-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크게 출세하게 됨.
-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함.
- 변압기를 가리키는 말.
- 손으로 정교하게 빚은 과자. 과거에 궁중에서 신에게 바치는 음식으로 사용하였으며, 왕족과 일부 귀족만 맛볼 수 있었다.
- 단편 소설보다도 짧은 소설.
- 1991년 핀란드 헬싱키 대학 학생이던 리누스 토발스가 대형 기종에서만 작동하던 운영 체제인 유닉스를 386 기종의 개인용 컴퓨터(PC)에서도 작동할 수 있게 만든 운영 체제.
- 생물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

## 틀린크림찾기 DIFFERENT SEARCH



두 사진에는 3곳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매달 정답자 세분에게는 가브리엘 천연공방에서 생산하고 있는 ‘천연비누’를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가브리엘 천연공방의 ‘천연비누’

## 천연화장품 & 천연비누



당신의 피부...  
피부가 살아 숨쉬는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연을 생각하는 아인미의 모든 원료는 화학원료가 아닌, 자연 속의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과 천연광물, 천연색소와 화장품 원료 기준에 적합하고 검증된 원료들만으로 만들어진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자연의 힘으로 스트레스와 유해물질들로 지치고 손상된 당신의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인미 비누는, 천연비누업계 최초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인증 및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 받은 제품을 취급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기념품, 답례품



천연화장품



천연비누



천연물렌징



천연바디워시

천연주방세제

※가브리엘 천연공방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쓰여집니다.

아인미  
Natural Beauty

■문의  
Tel. 930-0783 Fax. 930-0784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021-21  
http://www.gabrielcenter.or.kr

응모요령 : 2장의 사진 중 아래의 사진에 틀린 부분을 표시하고(2개 이상) 절취한 후, 우편엽서 뒷면에 붙여서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홍보협력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취임 1년,

## “회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먼**저 지난 1년간 부족한 저를 믿어주시고 격려해주신 존경하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원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협회를 비롯한 장애계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다수의 장애인 당선자가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좋은 소식도 있었지만 허울만 좋은 ‘장애인연금법’의 시행, ‘LPG 지원제도’ 폐지와 ‘공단(양경자) 사태’까지 장애인 삶과 자존심을 뒤흔드는 슬픈 소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회원여러분은 대한민국 480만 장애인의 복지와 권리를 위해 열심히 투쟁했습니다. 비록 눈앞에 보이는 성과가 작더라도, 지금의 현실이 녹록치 않더라도 지난 1년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어려운 환경이지만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저와 회원여러분들 모두 희망을 가슴에 품고,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그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으며,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항상 곁에서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만드는 데 다시 1년을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김 정 록

